

# 장동건 “19살차 박형식과 세대 차이 못 느껴요”

“6년 만에 드라마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오는 25일 첫 방송 하는 KBS 2TV 수목극 ‘슈츠’로 오랜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하는 배우 장동건(46)은 이렇게 말했다. ‘슈츠’ 전 그의 마지막 드라마는 2012년 SBS TV ‘신사의 품격’이었다.  
장동건은 현재 미국에서 시즌7을 방영 중인 인기 드라마 ‘슈츠’를 리메이크한 이번 작품에서 국내 최고 범무법인 수석 변호사 최강석으로 변신한다. 마지막 변론 따위는 필요 없이, 법정에서 서기도 전에 이겨 버린다는 전설의 변호사다. 능력, 재력, 외모, 위트 그리고 자신감까지 모든 것을 갖춘 남자다.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가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한다. 대학 문턱에도 기본 적 없지만 천재적 기억력과 공감 능력을 지닌 청년 고연우(박형식 분)를 자신의 신입 변호사로 고용해버린 것. 두 사람은 그렇게 특별한 법정 플레이어를 시작한다.  
23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장동건은 이번 작품을 선택한 데 대해 “최근 들어가 참여한 전작들이 좀 어두웠다. 또 비운의 주인공들을 많이 하다 보니 밝고 경쾌한 작품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 차에 ‘슈츠’를 만났고, 흔쾌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신사의 품격’과 ‘슈츠’가 밝고 경쾌한 건 비슷하지만 캐릭터가 굉장히 다르다”며 “브로맨스도 ‘신사의 품격’에서는 40대 중년 남자친구들의 것이었지만 이번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강석과 실제 모습이 얼마나 비슷하냐는 물음

**수목극 ‘슈츠’ 장동건·박형식 케미 기대  
원작 흥내 내지 않고 한국적으로 표현  
장동건 “15% 넘으면 시즌2에 출연”**

에는 “능력, 재력, 외모, 자신감, 위트 등 거의 다 일치하는 것 같아 연기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 위트 부분을 좀 보충하는 중”이라고 웃으며 “농반진반”으로 답했다.  
장동건은 19살 차이가 나는 후배 박형식과 호흡하는 데 대해서는 “초반이지만 재밌게 잘 촬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대본에 맞춰서 포인트를 잡아가는 과정인데 중 후반 지나면서부터는 애드리브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케미’(케미스트리, 공감)가 형성돼가고 있다”며 친근함을 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형식 씨와 세대 차이를 잘 못 느낄 정도로 대화가 잘 통한다”고 덧붙였다.  
장동건은 원작과의 비교가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원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을 결정했다”며 “결정 후 원작을 좀 봤는데 재밌고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혹시 제가 원작을 흉내 내게 될까 봐 시즌1 중간 정도까지만 보다가 덮었다. 우리 작품이 미국 드라마와 다른 매력

이 있다고 자신한다. 현지화가 잘됐다”고 답했다.  
그는 기대하는 시청률에 대해서는 “15% 넘으면 시즌2에 출연하겠다”고 말했다.  
‘슈츠’는 장동건과 박형식이 뭉쳤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됐다. 완벽한 정장 차림에 화려한 언변으로 무장한 세시한 두 남자의 캐릭터 플레이와 브로맨스가 최고 관심 포인트다. 톱스타 두 명이 출연하는 만큼 이날 제작발표회에는 다양한 내·외빈이 참석해 행사장을 꽉 채우기도 했다.  
제작진은 또 다른 관련 포인트로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아는 상위 1%의 변호사들의 모습을 그렸다는 점을 내세웠다. 제작사인 몬스터유니온 측은 이번 드라마를 창립 초기부터 오래 기획해온 만큼 완성도를 자신했다.  
연출을 맡은 김진우 PD는 “원작이 있는 작품이지만 흥내 내려 하지 않고 해석을 하기로 했다”며 “다만 지나치게 한국적으로 바꾸면 원작의 원래 정서가 훼손될 수 있어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건과 박형식 외에 진희경, 고성희, 채정안, 최귀화 등도 출연한다.  
25일 밤 10시 첫 방송.

# 21년 만에 컴백 솔리드 “팬들의 ‘오빠’ 소리 적응 안돼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셋이 같이 노래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첫 곡을 녹음할 때 느껴요. 정재윤 씨가 만든 노래에 제 목소리와 이준 씨의 랩을 입히는 데 소름이 짝 돋더라고요. 곡에 노래가 딱 붙는 느낌이었어요. ‘역시 우리 이런 느낌이었지’하고 감탄했어요.” (김조한)  
“처음엔 팬들을 실망하게 할까 봐 아주 많이 두려웠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모든 노래든 변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접고, 다시해보자고 마음먹었죠.” (이준)  
솔리드 신보는 이른바 ‘음원 차트’에서 힘을 쓰진 못했다. 그러나 한국에 R&B라는 장르를 처음 들여온 그룹답게 신선함이 돋보이는 음악이라는 평단의 호평이 쏟아졌다.  
정재윤은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난 시도를 많이 했다. 앨범 발매 1~2주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며 “21년 만에 났는데도 감각 있는 앨범이란 평가를 받아서 기분이 참 좋다”고 말했다.  
김조한은 “해체 뒤 ‘이 밤의 끝을 잡고’를 혼자 부를 때 정말 힘들었다. 원래 2절에 이준 씨 랩이 들어와야 하는데, 제가 랩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말했다.  
솔리드는 최근 팬 미팅을 연 데 이어 5월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18~20일 3회에 걸쳐 단독 콘서트를 연다. 당초 콘서트는 2회로 예정됐지만, 예매 시작 5분 만에 매진되자 1회 추가한 것이다. 서울 공연을 마친 뒤 월드 투어도 준비한다.  
이준은 “정말 어색했다. 평범하게 살아가다 갑자기 팬들이 ‘오빠! 오빠!’하는 걸 듣자 ‘왜 저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직 연예인이라는 게 적응이 안 된다”며 “그래도 팬들이 원한다면 계속 음악을 하겠다”고 씩스러운 듯 웃어 보였다.  
김조한은 “저희는 지금 소속사와의 계약에 묶인 게 아니니까 마음만 있으면 또 새 앨범을 낼 것”이라고 했고, 정재윤은 “셋이 뭉쳐서 하고 싶은 게 아직 정말 많다”고 다음을 기약했다.



박형식

장동건

TV 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 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위대한 유혹자(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뉴스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용(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재)	00 1%의 우정(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25 생생정보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잉크로 MBC 스페셜 (로그북 세월호 참수사들의 일기)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원설계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한국인의 밤상(재)	00 1대 100(재)	20 가자! 낭만 고향(재)	55 닥터 365
2	4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1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재) 35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뉴스브리핑
3	05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자동차부품생 위키 2 30 TV 유치원	05 프리파라 3 3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4시 뉴스집중 40 2018 지방선거 정당정책연설 (다들어민주당)	00 여유만만(재) 55 제보자들(재)	05 문화사색(재) 55 뉴스콘서트	00 고향건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스텝 서프라이즈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35 6.13 프로젝트 공생	50 인형의 집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토크지각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솔더	00 우리가 만난 기억	00 위대한 유혹자	00 키스 먼저 할까요?
11	20 KBS 뉴스라인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허룻범만 재워줘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국제공동제작자 아시안피치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스포츠 다이아리 20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칼의 역사 2부 13국의 요리칼, 차이다오)	09:40 정수의 비밀(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차돌양지 편육과 구운 마 썰라드)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9:30 EBS뉴스
06:00 한국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5:15 파파리카	19:50 극한직업 스페셜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0:40 세계테마기행 (충주는 서아프리카 2부 달콤 쌈싸름 가나) 21:30 한국기행 (잔치기행 2부 날마다 꽃 잔치)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7:45 출동! 슈퍼왕스2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21:50 EBS 다크프라이드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08:00 당동명 유치원1~2	16:00 냉장고 나라, 코코몽	22:45 우리만 이라가
07:45 출동! 슈퍼왕스2	08:30 허풍선이 과학소(재)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백치미
08:00 당동명 유치원1~2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4:45 지식채널e
08:30 허풍선이 과학소(재)	09:00 몬카트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24:50 다크 시네마 (점수서)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09:00 몬카트		17:30 마사와 곰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7:45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1~4	
		18:00 몬카트	
		19:00 몬카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4일(음 3월 9일 丙戌)

<b>子</b>	36년생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될 것이다. 48년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60년생 잡자코 있는 편이 낫다. 72년생 당해 문제의 여건이 충족되어 가는 국면이다. 84년생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체가 드러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5, 31	<b>午</b>	42년생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다. 54년생 결도습만 보아도 대중 짐작이 갈 것이다. 66년생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알자. 78년생 중요한 일을 단행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 날이다. 90년생 물고기가 출연해 변화하여 용이 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79, 32
<b>丑</b>	37년생 마음먹고 있던 일이 중단 될 수 있다. 49년생 진부함을 벗어나려는 피격이 요청된다. 61년생 실질적인 면을 우선해야겠다. 73년생 경제적 효율성에 비취되라. 85년생 전체를 아우르면서 일 일이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거의 같다. 행운의 숫자 : 54, 29	<b>未</b>	43년생 구색을 다 갖추다보면 대의를 도모하기 힘들어진다. 55년생 때와 장소를 가려야만 한다. 67년생 적합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버려라. 79년생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91년생 묵묵히 진행하다 보면 의외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행운의 숫자 : 96, 03
<b>寅</b>	38년생 진위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힘들겠다. 50년생 강도에 따라 판기를 내게 되어 있다. 62년생 편의만을 도모하다보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74년생 문제점이 보인다. 86년생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 봐야만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8, 80	<b>申</b>	44년생 문제점이 많으므로 재설계해야 할 처지라고 볼 수 있다. 56년생 급기가 신뢰를 얻으리라. 68년생 지연되기는 하나 목적은 달성되겠다. 80년생 현재 상태대로 진행하라. 92년생 시작만 요란 할 뿐이지 별 것이 없다. 행운의 숫자 : 20, 15
<b>卯</b>	39년생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 51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라. 63년생 예견된다면 당연히 피하고 봐야 하느니라. 75년생 여러 가지가 겹치는 형상이다. 87년생 약재가 여러 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행운의 숫자 : 85, 09	<b>酉</b>	45년생 가닥이 잡히는 시기이다. 57년생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그치게 된다. 69년생 사실 보다 과장하여 인식하고 있느니라. 81년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다. 93년생 조건 없이 조력하는 이의 성의가 기특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94, 17
<b>辰</b>	40년생 형국에 영향을 줄만한 현상이 나타나리라. 52년생 수습해야 할 입장에 놓인다. 64년생 손질이 가야 결실을 이쁘리라. 76년생 구제적으로 이행하자. 88년생 부실하다면 확실히 보완해야만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8, 00	<b>戌</b>	34년생 진중중 실행이 계속 되어야만 한다. 46년생 기반이 견고하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58년생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때때로움을 볼 수 있다. 70년생 빨리 철회할수록 이익이 나다. 82년생 원인을 분명히 따져봐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05, 66
<b>巳</b>	41년생 조건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거래 방법까지 모색하라. 53년생 미리 준비해 둔다면 머지않아 힘이 될 것이다. 65년생 특수한 상황까지 감안하는 것이 완성도를 높인다. 77년생 예를 먹겠다. 89년생 잠재적인 면에 주목하라. 행운의 숫자 : 60, 28	<b>亥</b>	35년생 두꺼운 얼음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형상이다. 47년생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 59년생 감정적으로 대할 일이 아니니 차분히 대처해야겠다. 71년생 고생해 놓고 남 좋은 일만 시킨다. 83년생 때가 아니니 물러서 기다려야겠다. 행운의 숫자 : 27, 3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